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슬픔의 사람 II

(이사야 69:19-3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 대한 찬송만이 성도의 마지막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떨시하지 아니하시므로 천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로 36절 중 7절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관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시인이 슬픈 상황을 애도(29-31절)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22-28절)하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30-36절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시인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1. 두 번째 슬픈 상황을 애도함(19-21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이다”(19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자신이 고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사 53:3).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14:14-16).

구약의 말씀들이 모두 신약에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몇 절만 한 번 이상 인용된 곳이 있는데 본문 21절은 4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할 때 인용되었습니다(마 27:34, 48, 막 15:23, 36, 눅 23:36, 요 19:29). 특히 요한복음에 분명한 설명이 주어지는데 요 19:28-30절 가운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는 시편 69:21절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2. 두 번째 도움을 호소함(22-28절)

여기서는 앞에서 한 기도처럼 고통 중에서 개인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28절). 불신자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불신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고 있지만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시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들을 처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교훈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그러나 우리 손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3. 저주가 된 축복

사도 바울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밭상이 울무와 덧과 거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롬 11:9-10). 이 말씀은 시69:22-23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69:22-23절과 바울의 로마서 인용절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선민인 유대인 개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놓쳤다면 그 결과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실패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들로 세례, 성찬식, 물질 소유, 주일이 있습니다.

세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내적 연합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인인데 많은 성도들이 내적 헌신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와 축복은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거짓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때므로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찬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례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저주요 미신이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물질 소유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진주만 폭격, 6.25전쟁은 모두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 날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죄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고난의 수렁 속에서도 시인이 찬송으로 본 시를 마무리 한 것은 성도의 표본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35절). 이런 믿음과 거기에 근거한 찬송은 빨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됩니다(31절). 뿐만 아니라 이런 확신과 찬양은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32절).

하나님께 대한 찬송만이 성도의 마지막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떨시하지 아니하시므로 천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통을 제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며 그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고통을 제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수종들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어진 수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2007 사명자 대회 50일간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

2007 사명자 대회(본부장 윤찬오 장로)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명자 대회의 핵심은 기도와 전도에 있다.

1. 기도

교회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간 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24시간 연속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열열이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두 번 기도한다.

또한 도고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작성한 태신자와 기도를 요청한 개인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2. 전도(태신자 작성)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된다. 태신자는 마치 복중에 태아를 잉태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모든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기도로 양육하여 출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대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회사의 동료들을 나의 태신자로 작정하여 모든 정성과 사랑, 기도로 양육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태신자 작정을 돕기 위해 오늘 주보에 사명자대회 공동기도카드와 함께 태신자 작정카드를 넣었다.

또한 잃은 양 찾기(다락방, 교회학교),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하여 지난 주 순례자에 발표된 것처럼 성대한 태신자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태신자를 기도로 양육하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고 3 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4일(주) 오전 10시30분 - 601호에서

10월14일 오전 10시 30분 601호(고등부실)에서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고3학생들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열려 지도록,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학부모와 기도 후원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윤찬오 장로
(2007 사명자 대회 본부장)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대명령(The Great Commission 행1:8)에 순종하여 몸 되신 우리 서울교회는 매년 교회설립 기념일 전 50일간을 '사명자 대회'라는 명칭아래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생명 잉태와 잃은 양 찾기,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 축적 전도운동을 총진군하는 기간입니다.

다.

이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몸 되신 서울교회는 내적 성장과 부흥, 민족교회의 일치와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건설되고 2020년 까지 민족 75%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올 12월19일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의 변혁자요 복음의 청지기로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 3:17)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대회의

기도

햇빛을

점화하여



박경희 권사(3교구)

17년 전 찬바람 몰아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물로 무릎 꿇게 하신 그때를 생각합니다. 사명자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서울교회의 기도의 햇빛을 힘차게 점화합니다.

지금은 서울교회의 설립16주년을 기도와 전도운동으로 50일간 작정하여 전교인이 참여하는 사명자 대회의 대장정에 오르려 합니다.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사명을 좇아 완수하는 결단의 행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받은 직임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명을 실천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지나고보면 언제나 부족했음을 못내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비어 종이 되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새벽 미명에 원근각처에서 달려나와 공동기도를 드릴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마'라고 응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조국이 이루어져, 세계를 향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아니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5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의 소망들이 하나하나가 기도의 불씨 되어 주님을 향한 길의 햇빛이 24시간 끊임없이 타올라 온 교에, 온 나라에 비취지는 사명자 대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주시길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의 나라, 한국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만난 제이 크로니쉬 선교사가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와 지난 주일(9월 30일) 우리 교회를 찾았다. 영어에애 설교를 한 크로니쉬 선교사는 순례자 편집진을 만나 최근 사역의 현황을 전하고 기도요청을 했다. 아래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나쉬 선교사는 순례자 편집진을 만나 최근 사역의 현황을 전하고 기도요청을 했다. 아래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 Q & A >

Q. 한국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반전운동과 히피문화에 심취해 젊은 날을 보냈던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한국인 아내를 따라 LA한인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유대인 메시야로 오셨지만 현재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민은 지난해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후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완벽한 것으로 평가 받는 국방력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신화는 깨졌고, 이젠 무엇을 의지해야 할 지, 누구를 믿어야 할 지 몰라 낙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회당으로 나와 경전을 읽으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요가, 명상 등에서 마음에 평화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기도의 나라 한국에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Q. 우리교회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이 첫 예배를 드렸던 “순례자의 집”의 현황은?

- 8월초 설립 이후 저는 줄곧 외국에 나가 있어서 설립 이후의 진행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는 이홍명 선교사가 그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Q.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계획은?

-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 카페(book cafe)를 내년 중에 예루살렘에 열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Q. 기도 제목 나눌 것이 있다면?

-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또 그곳엔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계 유대인과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면서 신앙을 버릴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여도 이스라엘 복음화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험생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은 시험(test)은 결코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빠뜨리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고, 우리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은 시험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그러 하듯이 그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수험생들에게



서명철 목사(대학부 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필요

담대하게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시험에 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대충, 적당하게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시를 앞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07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 후서
10월21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6일(금) 본선 - 602호에서

2007 성경암송대회는 10월21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예선에 통과된 성도들은 10월 26일(금) 602호에 모여 본선을 갖는다.

성경암송대회의 본선은 (개역개정판) 디모데 후서 전장을 범위로 한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차 없는 주일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례자를 통해 계속 공지 된 대로 오늘 우리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협조 속에 차 없는 주일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함이 죽어가는 지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계를 되돌리는 작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간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카풀제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조금이나마 아껴써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도록 합시다.

천국시민양성 - 결혼예비학교를 마치고

진실한 결혼의 의미

권재현 (청년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았지만, 단 한 가지 완전치 못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어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을 통해 바로 그 한 가지를 온전하게 하셨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이런 저런 결혼예식 및 당일 행사의 준비에 마음이 분주했던 나에게 결혼예비학교는 정작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되면서 겪어야 하는 변화, 또한 내 기준과 상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웠던 많은 다짐들을 풀어놓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매듭을 지어 가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5주 과정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등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야 하는 것들로 정확히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들을 모시고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미리 결혼에 대해 준비하려는 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더욱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하나님께 드러질 결혼 예식을 보다 온전히 준비하고픈 예비 신혼부부들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교제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하고픈 청년들이라면, 결혼예비학교가 하나의 해답이 될 줄로 믿는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 주관으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의 서선영 선생(소프라노)과 이희상 선생(카운터 테너)의 독창과 이중창으로 드러진다. 서선영 선생은 중앙음악 및 이태리 칼리시 주최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으며 이희상 선생은 동아 콩쿠르와 이태리 베로나 국제 콩쿠르 및 비엔나 벨베테레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였다.

이들은 차세대를 이끄는 젊은 성악가들로 오늘 저녁에는 Pergolesi의 "육신이 죽어도" 외에 3곡으로 찬양을 드린다.

동성

- 이종윤 목사는 9일(화) 스테반회 특강, 11일(목) 장로교 신학회, 12일(금) 70인 목회자회, 군선교 정기 이사회에 참여한다.
- 발령 : 박길수 집사(13교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 지부장
- 사무실 이전 : 조영길집사 김지영집사(1교구)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역삼2동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 2183-2700
- 이사 : 정은길 성도 노은주 성도(1교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7동 803호
- 득남 : 최정필 홍지민 성도(5교구)
- 주간식당 봉사 : 빌립선교회(10.7) 안드레선교회(10.14)
- 금주의 식사 :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이계순 이진영 성도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두 대의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두 대의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준비된다.

트럼펫은 고헤정, 정혜경 선생이 오르간은 이순재 선생이 연주한다.



고황정 선생은 서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웨일말메종 극립음악원 슈퍼리어과정 엑셀런스과정 디플롬, 프랑스 몽트레이유 국립음악원 슈퍼리어 과정 디플롬, 사단법인 베누스토 트럼펫 강사, 서울 트럼펫 단원을 역임하였으며 국내유수 교향악단 객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혜경 선생은 서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콩쿨 금관부 1위, 연희단 패거리 이윤택 연출자와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였다.



이순재 선생은 The University of Toronto 기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고 Kiwanis Music Festival 피아노 부문 2위(1997), 3위(1998), 캐나다 토론토 한국일보 주최 음악콩쿨 3위(1998)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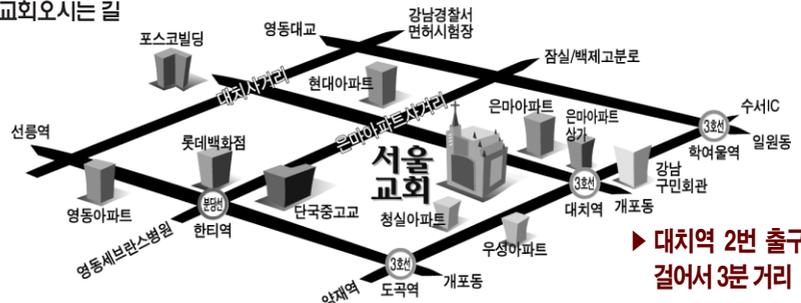
이번 화요정오음악회에는 헨델의 곡 이외에 6곡을 연주한다. 성도들과 주민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